경북, 5대 첨단·전략산업 인재 육성… 4년간 2360억 투입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계획
AI·로봇 분야 등 4만2000명 양성
대학 거점으로 청년 지역정착 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4년간 2360억 원을 투입해 대구·경북 5대 첨단·전략산업 인재 4만 2000여 명을 양성한다. 대상 분야는 AI 반도체, 첨단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다.

도는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학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삼고 기업과 함께 인재를 키워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첨단산업 단과대학 운영, 전략산업 앵커 대학 완성, 초광역 공유대학 거버넌스 구축, 성장엔진 인재 육성 등 4개로 추진한다. 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북 앵커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에는 59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단과대학에는 8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로봇·이차전지 분야 인재 1만 5000명을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이 특성화 계약학과와 융합연구원, 기업 공동연구소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양성기관은 내년 초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다. 특성화 계약학과에서는 주문식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전략산업 앵커 대학 사업은 600억 원을 들여 AI·첨단 모빌리티·바이오 분야 인재 2만 명을 키운다.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가 참여하며 경북 AI 융합원 가동과 항공·방산 분야 기업 공동 프로젝트, 바이오 융합 전공 운영을 추진한다. 교육·연구 혁신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광역 공유대학 사업에는 36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대의 자원을 지역 특성화 대학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북 8개 대학과 대구 지역 대학,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로봇·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바이오 분야의 공동 교육과 산학 공동 연구 등을 통해 3,900명을 양성한다.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은 경북도와 금오공대가 주관하고 대구시와 대경권 대학, 기업, 고등학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 공모에서 S등급을 받아 600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금오공대 등 대경권 8개 대학, 반도체·로봇 등 지역 기업과 함께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AI 제조 로봇 분야의 인재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8개 대학이 공동교육과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One-Campus', 취·창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One-Career', 기업 수요형 공동 연구와 기술이전을 묶는 'One-Chain' 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도는 대학과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생태계 추진단(TF)을 가동한다. 4개 사업을 연계해 분야별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장비 구축·공유를 추진하고, 대학과 청년 정책, K-U시티 등을 연계해 인재 양성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앵커 체계에서 인재를 키우고 청년 정책으로 성장과 도전을 지원한다. 도는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살펴보세요"

전남광주, 정보 플랫폼 '칩온' 운영
시민들에게 추진 현황·비전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며 사업 추진과 핵심 기반시설, 향후 일정 등 시민의 눈높이로 제공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과정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 '칩온(CHIP ON)'을 본격 운영한다.

'칩온'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현황과 기반시설 준비 상황, 향후 절차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딱딱한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시민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영상플랫폼인 '칩온(ON) TV'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홍보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시민온(ON)'에서는 산업단지 위치와 조성 일정, 전력·용수 공급, 일자리와 교통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형식으로 안내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배미경 대변인은 "칩온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특별시 전남광주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충남도, '도립파크골프장' 사업 본격 추진

기본·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충남도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총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108홀 규모의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충남도는 도청에서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 코스 배치와 부대시설 등 세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일원 21만 5141㎡(약 6만 5000평) 부지에 108홀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말 공사 발주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감도. /충남도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공사를 발주하는 등 목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산상의, 지역 상공업 기여 기업인 선정

김현겸·김종오·이오선 수상

부산상공회의소가 제44회 부산산업대상 수상자로 지역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경영 부문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기술 부문 김종오 ㈜펠릭스테크 회장, 사회공헌 부문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회장이다. 부산상의는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

김현겸 회장은 2002년 부산~오사카 항로에 국적 카페리 '팬스타 드림호'를 취항시키고 중국 석도~군산·부산~오사카 복합운송 항로를 개척했다. 같은 해부터 장애인 부부와 취약계층 대상 무료 크루즈도 운영했다.

김종오 회장은 1998년 창업해 단조기술을 개발했으며 2007년 상용차용 디젤엔진 단조피스톤 양산에 성공했다. 사우디 아람코 공급업체 등록과 액화수소·항공엔진·반도체 공정용 부품 개발도 수상 배경이다.

이오선 회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표면처리 공장을 최근 7년간 약 1500명에게 공개했다.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29명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체육·장학 후원도 이어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울진군, 지역인재 원자력 분야 취업 지원

내일 '원자력 기업 홍보·채용박람회'

울진군이 원자력산업과 지역 인재를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홍보 및 채용박람회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오는 27일 울진군민체육관에서 '2026 울진 원자력 기업 홍보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일대학교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울진군 등이 후원한다. 지역 학생과 청년들에게 원자력 분야의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지역 원자력산업과 관련 기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현대건설 등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설명회에서는 주요 사업과 직무,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공동부스에서는 기업별 홍보와 채용상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학 전공 체험과 진로·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응급구조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이번 박람회가 지역 학생과 청년들이 원자력 관련 기업과 직무를 직접 알아보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사업 첫 결실

경기도의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을 받은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성공사업화료 약 1억 6000만 원을 납부했다. 경기도는 24일 리벨리온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3억 2000만 원의 절반을 납부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1억 원 이상 선투자한 도내 기술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투자·보육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매출 증가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인 기업은 지원금의 50%를 성공사업화료로 납부한다. 납부금은 후속 창업기업 지원에 쓰인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밀양시

'열린관광지 사업' 10억 투입

경남 밀양시의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영남루 권역 수변공원이 '2027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밀양시는 두 관광지의 이동 여건과 편의시설, 관광 안내체계 개선에 총 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으로 마련한다.

시는 관광지별 특성과 방문객 이용 여건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정하고, 권역별 컨설팅을 거쳐 2027년 2월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밀양(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포항시

북극항로 특화항만 전략 모색

포항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시대 대전환 전략 포럼'을 열고 영일만항 특화와 AI 기반 해양·항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포항시와 경북도,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과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부와 해양·항만 관련 기관 관계자,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포럼에서 나온 제안으로 전략을 보완해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정책과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국립창원대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권

국립창원대학교가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1801~2000위 구간에 처음 진입했다. 대학 자체 분석에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국내 대학 가운데 14위로 집계됐다.

국립창원대는 지난 9월 30일 발표된 THE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세부 지표를 분석해 개선 과제를 찾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성과 관리 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